

# 금융실명제 이후의 경제동향

韓 振 奎\*

## 1. 머리말

지난 8월 12일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한달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다. 금융실명제는 우리 사회의 거래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제제도의 개혁이라기보다는 사회전반에 대한 총체적 개혁의 성격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의 실시시기 및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큰 혼란이 야기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해 왔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일부에서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이 크게 저해받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견해들은 현상을 토대로 하지 않은 일종의 시뮬레이션에 불과한 것들이기도 하다.

아직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금융실명

제가 실시된 후 한달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전반적인 경제동향을 점검해 보는 것은 각별한 의의를 지닌다.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중 하나는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과 투자위축인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실명제 이후의 산업별 경기, 수출동향 및 시중의 자금사정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산업별 경기

거시경제지표상으로 볼 때 금융실명제 실시전까지 우리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충분한 성장탄력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금년 상반기의 실질 GNP 성장률은 3.8%에 불과, 지난해 하반기의 3.0%보다는 높아졌으나 기대했던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과소비 억제 및 사정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증가하지 못

\*産業研究院 動向分析室 責任研究員

한 가운데 기업의 설비투자 역시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감소세에서 회복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수출도 중화학제품의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주도할만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지는 못하였다. 신발, 섬유 등 경공업제품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주요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기비연율, %)

	1991	1992				연간	1993	
		1/4	2/4	3/4	4/4		1/4	2/4
실질 GNP 성장률	8.4	7.4	5.9	3.3	2.8	4.7	3.4	4.2
제조업 성장률	8.9	7.8	8.6	3.3	0.3	4.8	1.4	2.2
민간소비증가율	9.3	8.5	7.0	5.2	5.3	6.4	5.5	5.0
설비투자증가율	12.8	8.5	4.5	-3.1	-10.2	-0.8	-10.1	-1.5

자료: 한국은행.

이론상으로 볼 때 금융실명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건전한 금융질서의 정착,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 등 기업투자에 긍정적인 요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긍정적 파급효과는 중·장기적인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우리 경제에 다소나마 주름살이 더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파급효과는 업종별로 큰 폭의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경기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연구원이 117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인 지난해 8월과 실시 이후인 금년 8월을 비교한 이 조사에서 현재의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상황이 매우 좋다고 응답한 업체는 없었으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6.8%였던 데 비해 자신이 속한 업종의 경기상황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

한 업체는 29.1%에 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응답업체들이 느끼는 현재의 경기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부진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민경제 전체보다는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의 경기상황이 좋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금융실명제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실제보다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경공업부문의 경기침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반면, 중화학공업의 경기는 금융실명제 실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실명제 실시의 적응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형 업종이 상대적으로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제조업의 경우 내수부진으로 인해 생산이 줄어들었음에도 재고가 늘고 있고, 수출여건 개선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여 채산성이 다소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산업은 그동안의 시설투자 결과 생산은 증가했지만 내수부진과 수출여건 악화로 인해 채산성은 지난해에 비해 나빠지고 있다. 목재·종이 제조업의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와 비슷하나 수출부진의 여파로 재고가 늘어나고 채산성도 악화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기계·장비류 제조업과 전기·전자산업의 경기는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기계·장비류 제조업의 경우에는 지난 5~6월 중 정부의 구조조정자금을 타기 위한 신규수주가 크게 증가했고, 그 결과 생산 및 출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기·전자산업은 최근 출시되고 있는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엔고의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있어 호황세를 보이고 있다.

타이어 제조업과 직접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화학 및 자동차산업의 경기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기는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가 종료된 이후에도 휴가 실시 등의 이유로 인하여 본격적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다 8월 중순이후 주요 업체들의 가동률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고 그동안의 주문대기물량 처리 등으로 큰 폭의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의 경기회복은 9월 이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의 경기는 그동안의 대기물량 소진, 수출 및 내수 증가에 힘입어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성장세는 타이어산업의 수요증가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산업별 경기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주장은 실사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것으로서 설문대상기업의 34.0%는 금융실명제

이후로도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었다고 응답했고 응답업체의 32.0%는 수요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했으며 30.2%가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다고 응답했다. 즉, 금년 8월의 저조한 경기는 금융실명제 실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경기부진이 더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 3. 수출동향

수출은 중화학제품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8월말 현재 전년 같은 기에 비하여 5.9%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수출이 완만하나마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는 아직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엔고에 따라 대일본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었고, 동남아, 중국 등 개도국 신시장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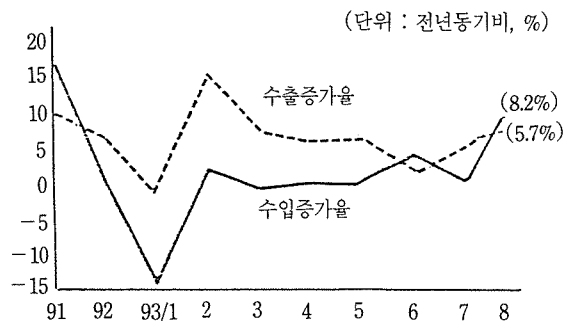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수출동향을 분석해 볼 때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할 때 금년 8월의 수출은 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표2〉금융실명제 이후의 업종별 체감경기

	생산	수출	출하	재고	채산성
음 식 료	↓	↑	↓	↑	↑
석 유	↑	↑	→	↑	↓
신 발	↓	↓	↓	→	↓
목재, 종이	→	↓	→	↑	↓
화 학	↑	↑	↑	↑	↓
1 차 금 속	↑	↑	↑	→	↑
기계, 장비	↑	↑	↑	→	→
전기, 전자	↑	↑	↑	↑	↑
자 동 차	↑	↑	↑	↑	→
기 타	↑	↑	↑	→	↓

주: 1) 생산, 출하, 재고, 수출은 금년 8월중 전년 8월 대비 8% 이상 증가일 경우 (↑), 0~8% 증가일 경우 (→), 감소일 경우 (↓)로 표시하였음.

2) 채산성은 좋아졌다는 응답이 우세할 경우 (↑), 비슷하다가 우세할 경우 (→), 나빠졌다가 우세할 경우 (↓)로 표시하였다.



자료: 관세청.

〔그림 1〕수출입 증가율 추이

6월의 3.2% 및 7월의 5.4%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물론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중소기업의 수출자금 조달에는 다소 부담이 작용하겠지만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가 수출기업의 비용상승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업체에 따라서는 이러한 비용상승압력은 기업내부에서 흡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해외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엔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수출여건은 금융실명제 실시의 여파를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내수위주의 업체들과는 달리 수출업체들의 경우에는 제도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어 파급효과는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제도금융권을 통하여 무역금융 및 무역어음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무역금융제도를 통하여 원자재 구매 및 생산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무역금융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생산, 구매자금은 2차적으로 무역어음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다만, 무역어음 할인실적의 68% 정도를 점하고 있는 제2 금융권의 할인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수출업체의 자금압박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조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실사 결과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최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사의 시장개척 회원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전체 응답기업중 80% 이상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자금압박이 가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이어산업이 직면하게 될 수출경기는 오히려 현재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타이어산업의 수출은 금년 2월과 3월에 각각 전년 같은 기에 비하여 20.3%(8700만달러)와 11.3%(1억 100만달러)가 증가한 이후 침체양상을 보여왔고, 그 결과 8월말 현재 전년 같은 기 대비 증가율이 5%에도 못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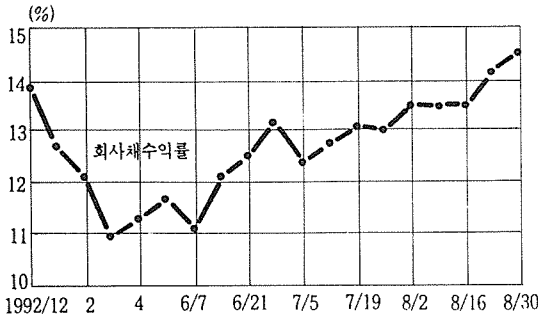
그러나 엔고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자동차 수출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향후의 수출전망은 비교적 밝은 것으로 전망된다.

#### 4. 시중 자금사정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시중의 자금사정은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의 실세금리(3년만기 회사채수익률)는 자금비수기인 8월 들어 안정세를 보이다가 정부의 전격적 금융실명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8월 12일 이후 정부는 800억원 규모의 채권을 13.5%의 이율로 매수할 것을 금융기관에 지시하는 등 금리안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으나 이같은 노력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시장 실세금리는 크게 상승하여 8월 12일에 13.5%였던 회사채수익률은 8월 30일에는 14.5%로서 무려 1.0%포인트나 높아졌다.

이와같이 시중 실세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발행채권의 대부분을 소화해내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채권매수를 자제하고 있는데다 사채업자들 역시 자금노출을 우려해 채권매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로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단기화현상이 이어지고 주매수기관인 투자신탁회사들의 자금이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는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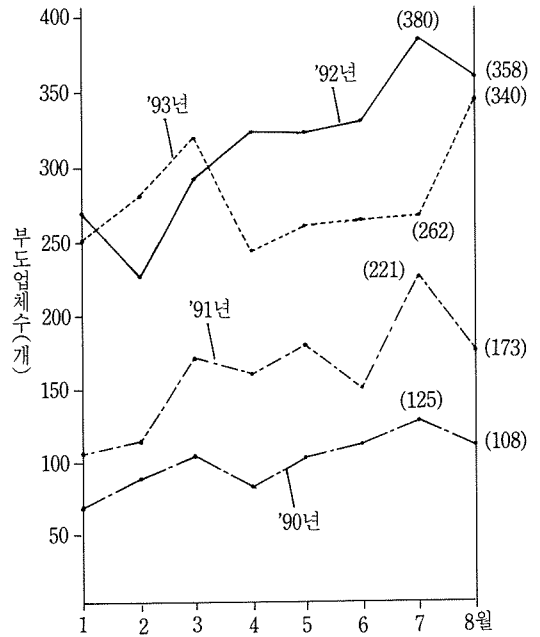
(그림 2) 회사채 수익률 변동 추이

등 불균형세가 지속된 결과이기도 하다.

보다 큰 파급효과는 그동안 제도권금융을 활용하지 못하던 영세 중소기업들이 활용해 온 사채시장이 유명무실해진 데서 발생한다. 사채시장은 그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수행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사채시장이 폐업상태에 놓이면서 영세 중소기업들의 어음할인 등 자금조달이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에 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실사 결과에 의하면 대기업들은 회사채발행이 곤란해진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사채시장의 경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데서도 이러한 현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자기자금의 인출을 우려하고 있으며, 대기업중에는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시중 자금사정의 악화는 결국 한계기업들의 부도 증가로 귀착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의 예를 볼 때 8월의 부도업체수는 7월보다 적었던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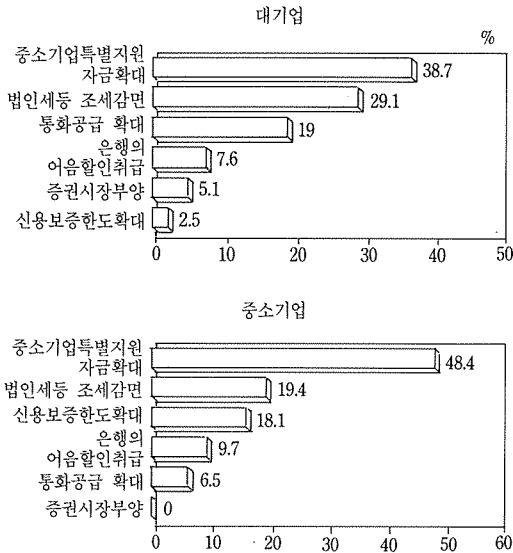
자료 : 상공자원부

(그림 3) 서울지역의 부도발생 추이

발표된 상공자원부의 통계를 보면 8월중 서울지역의 부도업체수는 총 340개사로서 7월의 262개사보다 29.8%나 증가했다. 특히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인 8월 13일~8월 31일까지의 부도업체수는 총 221개사로서 8월 총부도업체수의 65%에 달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기업들은 금융시장의 경색 및 기업부담의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완책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자금의 확대가 최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자금의 확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히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으로 꼽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경영악화시 새로운 거래선을 찾는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지원 확대

가 경영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많은 기업들이 법인세 등 조세감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무자료거래 등 조세회피의 편법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어 조세부담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 자금조달상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 5. 평가 및 전망

이상을 종합할 때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하여 우리 경제에는 단기적으로 주름이 더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름은 주로 자금조달상의 애로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퇴장을 보충해 주기 위해 정부가 통화공급량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 자금공급 등을 늘리고는 있으나, 금융시장의 경색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금융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제조업부문의 경기는 크게 위축되지 않고 있다. 다만, 유통업부문의 경기는 계절적 요인과 금융실명제 실시의 여

과가 겹쳐 비교적 큰 폭의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 견인차 역할을 했던 수출도 완만하나마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금융실명제의 단기적 여파를 흡수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단기적으로 추석자금이 소요되는 9월에는 시중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한계기업의 부도도 증가하는 현상이 예상되나, 이와같은 혼란은 단기적 현상에 그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경제동향을 볼 때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혼란은 금년중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은 실사 결과와도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금년의 경기는 금융실명제 실시의 여파로 다소간의 위축이 예상되나 내년의 경기는 상당히 밝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내년의 경기가 금년보다 훨씬 나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생산 및 수출이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업체들이 과반수에 달하고 있다.

제도의 개혁에는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며 일단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는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자본주의의 도입 이래 지속되어온 관행을 변혁시키는 것인만큼 사회적 비용의 수반은 필연적인 것이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합치된 노력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경기를 회복시키는 첩경이며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및 성장 잠재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